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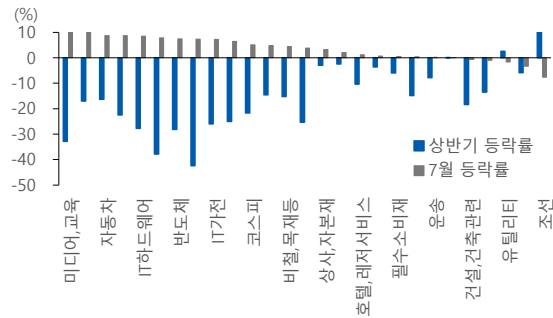


낙폭과대에 대한 관심

1. 글로벌 증시 반등과 낙폭과대 스타일

- 글로벌 증시는 6월 급락 후 7월 반등에 성공
- 반등의 주역은 지난 상반기 하락국면에서 낙폭이 컸던 업종들
- 국내증시에서도 유사한 경향 확인. 미디어/엔터, 소프트웨어, IT 등의 반등폭이 특징적

7월 국내증시 반등은 상반기 낙폭이 컸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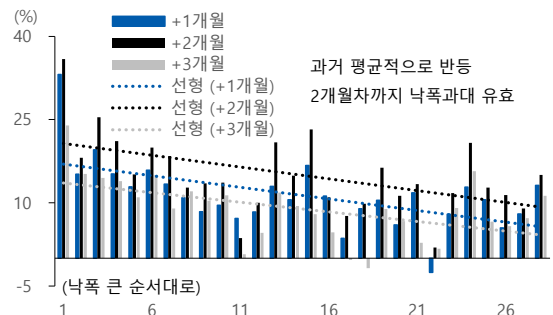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2. 단기적 관점의 접근 유효

- 상반기 낙폭과대 업종의 반등은 상반기 부정적 요인의 진정을 의미
- 금리와 금리 변동성의 상승세가 진정된 점이 배경이라고 판단
- 6월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 둔화 기대가 금리 변동성 진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요인
- 통계적으로는 과거 낙폭과대 스타일이 2개월차까지 유효했던 점도 참고할 필요

과거 하락국면 이후 반등 시점에서 평균 2개월차까지 낙폭과대 스타일이 유효했던 경향



자료: Quant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1. 글로벌 증시 반등과 낙폭과대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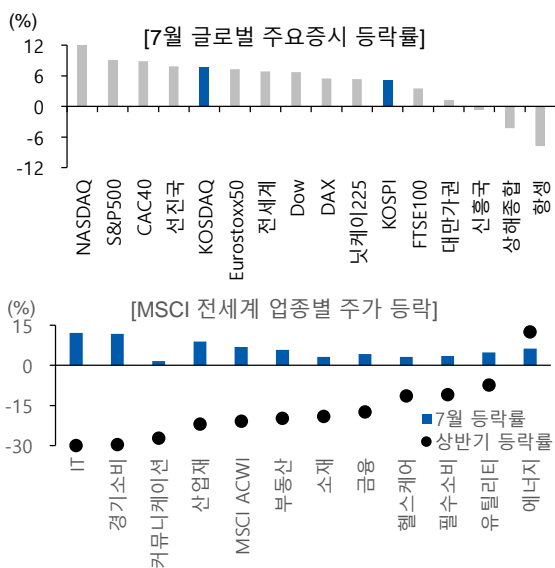
7월 중순 이후로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 지난 5~6월 강세를 보였던 중국증시를 제외한 한국,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증시는 2020년 이후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6월 급락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증시의 7월 반등은 IT, 경기소비와 같은 업종들이 주도했다. 아직 상대적으로 부진한 커뮤니케이션 업종과 현재까지도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면 상반기 낙폭이 컸던 업종들의 반등 탄력이 컸다.

국내증시에서도 마찬가지다. 7월 상승률 순서대로 세부 업종들을 정렬해보면 대체로 상반기 하락국면에서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선두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낙폭과대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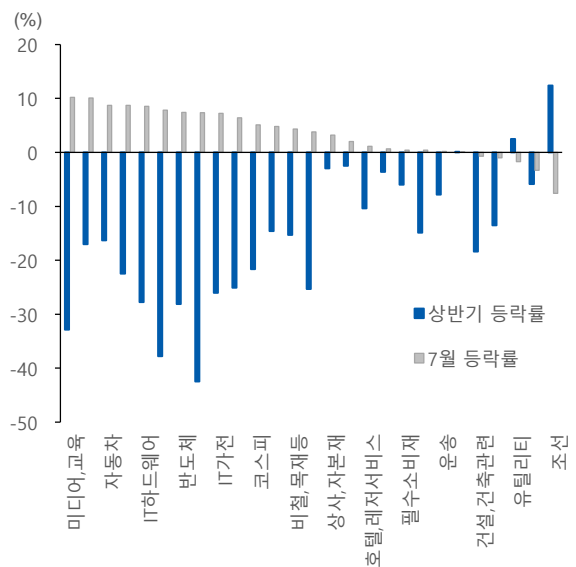
과거 KOSPI 지수가 고점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 국면에서의 반등이나, 이격도, RSI 등 기술적 과매도 국면 이후의 반등이 나타날 때 낙폭과대 컨셉은 통상 단기 2~3개월 가량 유효한 매매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차트1] 7월 글로벌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반등, 업종별로는 상반기 낙폭이 컸던 업종 중심으로 반등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7월 국내증시의 반등도 상반기 낙폭이 컸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낙폭과대 업종에 대한 관심 지속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단기적 관점의 접근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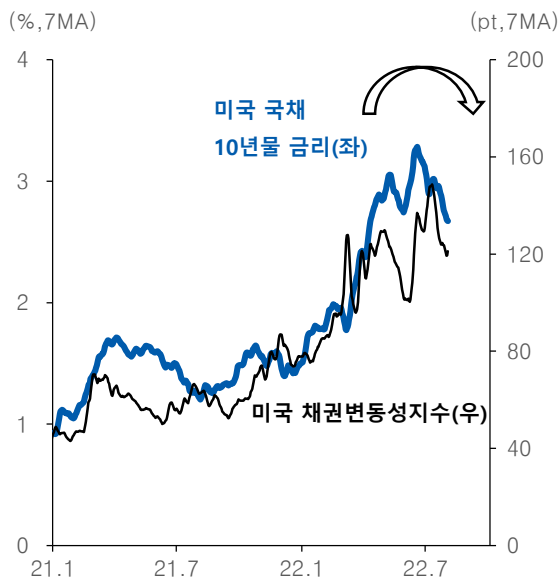
상반기에 부진했던 업종들의 반등은 결국 상반기의 부정적 요인이 진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올해 상반기 내내 증시를 괴롭혔던 물가와 금리의 진정 가능성이 있다. 가파르게 상승했던 미국의 금리와 금리 변동성이 진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밸류에이션 조정장세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업종들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낙폭과대 스타일 반등의 배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은 인플레이 둔화 기대가 금리 변동성의 안정이 유지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단기적 관점의 낙폭과대 업종에 대한 관심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낙폭과대 스타일은 단기적인 접근법을 의미한다. 반등에 성공하는 경우 해당 업종이나 종목은 더 이상 낙폭과대 컨셉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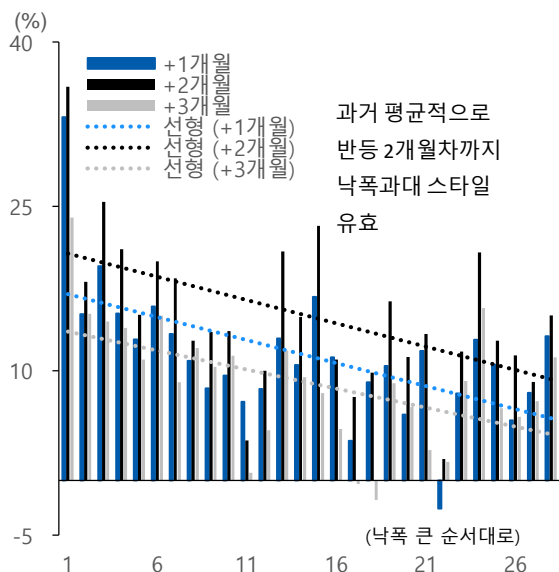
통계적으로는 2000년대 들어서 KOSPI 지수가 월간 기준으로 6개월 전 및 전월대비 3개월 연속 하락한 구간이 이번을 포함해 총 6회인데, 앞선 5회의 경우에서 평균적으로 2개월차까지 낙폭과대 스타일의 강세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차트3] 상반기 가파른 금리 상승과 함께 높아진 금리 변동성이 최근 진정되는 양상



자료: Bloomberg,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과거 낙폭과대 스타일 중심의 반등이 2개월차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



자료: Quant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